

2019년 희곡우체통 4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

<클로이>

삶의 경계와 더불어 연극의 경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공간도 인물도 극적 설정과 관점도... 2019년 희곡우체통 4차 낭독회 선정작은 <클로이>입니다.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양아버지에게 충을 쏟았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다녀온 ‘클로이’ 가족과 그녀를 인터뷰하러 간 국내 입양기관 직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입니다.

표면적으로 <클로이>는 중심이 사라진 시대에 국가라는 중심을 떠나 부유하는 디아스포라에 대해 성찰하는 작품이지만, 이면에 더 큰 주제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기 어려운 인간의 나약함, 친밀한 관계 속에 고인 해묵은 상처와 오해 등, 그리스 비극 <오이디푸스왕> 이래 오랫동안 무대에서 고민해 온 연극적 고민이 녹아있습니다. 희곡의 언어가 점점 단선적으로 흘러가고 연극성만 부각되는 시절이라, 깊이와 문학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클로이>의 발견이 반갑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희곡은 무대 공연을 전제로 한 글쓰기이고 그런 점에서 전반부의 장황한 언어나 전개방식, 또 작품의 세계관을 부각시키기 위해 만든 극적 구조가 아직은 설익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희곡우체통은 그 설익음과 만만치 않은 가능성 사이에서 관객 여러분과 함께 징검다리를 놓고 싶습니다. 배우들과 작품을 토론하며 낭독회를 준비하고, 그 낭독회와 더불어 관객 여러분들과 작품의 가능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4차 낭독회는 초여름인 6월의 어느 저녁 시간, 한 작가가 탄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객여러분, 그 멋진 시간을 위해 국립극단 희곡우체통 낭독회로 저녁 나들이 오십시오.

희곡우체통은 국립극단이 공연할 문제작을 찾기 위해 2018년에 마련한 상시 투고제도입니다. 동시대의 시의적절한 주제와 형식을 갖춘 장막극을 환영합니다.

동시에 국립극단은 이 제도를 통해 비록 공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성 있는 여러 편의 창작극을 발굴하여 낭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형식의 낭독회이긴 하지만, 작가가 문자로 구축한 세계가 실제 관객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효과와 문제가 있을지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 낭독공연을 매개로 가능성 있는 작품이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관객 여러분도 낭독공연이라는 징검다리를 함께 놓아주십시오.

희곡우체통 우체국장 김명화